

# 內務委員會會議錄

第 49 回

第 3 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1996年 1月 29日 (月) 午前 10時

場 所：內務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第4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 가. 企劃管理室所管
- 나. 公報官室所管
- 다. 國際通商協力室所管

## 審査된案件

####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 가. 企劃管理室所管 ..... 1 面
- 나. 公報官室所管 ..... 8 面
- 다. 國際通商協力室所管 ..... 10 面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1. 1996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 가. 기획관리실소관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 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질의하세요.

○金龍淵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동물원사업이 곧 추진될 것처럼, 바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동물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사실은 대체적인 윤곽을 잡고 확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한 달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늦어지는게 아닙니다.

현재 민자유치에 대한 신청을 한 결과 한 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 업체에 대한 심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업체에서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기본계획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하나하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은 장래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낼 생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淵委員 다만 한 가지 더붙어서 말씀

을 드린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업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업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로 그냥 갔을 때는 잘못하면은 가양공원이나 호동공원의 짝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대전시에서 동물원을 짓는 것은 점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나라는 우려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시민들의 바램이 동물원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엇그저께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그것이 좀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부에서도 그렇고 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더 과라든가 계까지 무리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정교부금 문제 있지요, 재정교부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각 구마다 교부금을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배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구로부터 의혹을 굉장히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조직개편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신 모든 의견들이 향후에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로 봐서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정교부금문제는 특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李殷奎委員 예, 10%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 문제는 현재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까마는 현재 이거에 대한 운영계획과 지침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어느 구에도 아직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까마는 그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구에서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李殷奎委員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수익을 하려면은 우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업 쪽으로는 우리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꼭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번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수익을 얻는 이러한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경영수입은 앞서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공공성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저해하는 경영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

으로써 어떤 시책이나 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꼭 경영수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사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제도만을 바꾸어서 그야말로 공공성을 저해 않는 범위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한다면은 저희들도 과감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李殷奎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전 본회의장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호남선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운운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호남선철도특위 위원장을 초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비교해서 우리 대전도 호남선철도이설을 해야 된다, 광주는 967억 전액을 국고지원 받아서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아직도 지금 어떠한 실마리를 잡고 있지 못하더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선철도이설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철도청에서 대전시에 호남선철도이설해준다’ 이러한 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광주와 같이 좀 뭔가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우리 중앙으로부터 철도이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호남선철도이설기획단 단장님으로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애초부터 호남

선철도이설에 대한 시민의 연대분위기 조성  
을 위해서 세미나도 예정이 돼 있고 해서 상  
당히 금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적 공  
감이라든가 어떤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창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고지원  
확보특별대책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팀 32명으로 돼 있는데 각  
실·국장이 총책임으로 해서 현재 2월 이후  
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남선철  
도이설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 중점 과제로써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이  
상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委員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추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대전시 도시계획 재  
정비를 언제쯤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에 있습니다.

○李殷奎委員 금년 몇월쯤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 연초에 발주  
하면은 금년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李殷奎委員 금년말까지 끝나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재  
조정 당시 호남선철도이설 부지를 시설결정해  
놓으면은 어떤가 해서 이번 재조정할 때로 부  
지노선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해 놓으면은 일  
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중앙에 우리가 건의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니 사업비를 주십시  
오” 하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해 놓지 않은 데서 무조건 호남선철도

이설을 운운한다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기간 내에 노  
선결정을, 시설결정을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  
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는 제가 도  
시계획국하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  
토를 해 보고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방법도 있고 우리 도  
시기본계획을 금년도부터 입안합니다, 2010년  
까지 예정이 돼 있는.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야 되는 건지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도시계  
획국과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委員 재정비계획에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  
리 실장님께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3페이지 보시면 ‘대전사랑운동  
전개’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구상도 하시고  
전개를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보시게 되면은 ‘대전상품 팔아주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고장 상품 애용’ 쪽  
이렇게 해 났습니다.

‘향토농산물 팔아주기’, ‘각종 공사 지역업  
체 수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  
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국에  
한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측면

의 예산이 약 13억까지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기획실장님께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관에서 구입하는 물품 만큼이라도 대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대전지역 업체를 애용하는 측면에서 각 사업소라든가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님께서 '다 발송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공문이 발송됐는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까지도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물품 구매가 거의 의존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조달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구매를.

꼭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달청 구매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왜 조달구매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러한 감사에 지적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를 선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우선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박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기본계획이 작년도 일차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하나의 핵심적인 사항이 우리 상품을 팔아 주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이 이미 나가

있고요 특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국에서도 몇 차례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전사랑운동 차원에서 보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발주공사나 물품계약 할 때 우리 지역업체나 물건을 사는 것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50억 공사의 경우에는 50억 범위내에서는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발주를 할 수 있고 물품의 경우에는 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조달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지식은 없습니다만 법규상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금액범위가 회계법규에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委員 제가 알기로는 '금액 얼마에서'라는 조달구매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달구매법에도.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다 공문은 발송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공문도 발송하신 걸로 알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제가 뭐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공문은 전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측면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고 운동차원에서 벌인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로 되어서 나온 것, 공식 시장명의회 공문이라든가 가능하면 지역 상품을 팔아주도록 이러한 공문을, 협조공문을 우리 시청관내에 시소속 기관에 공문을 보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우리 실장님 확인해 주시고 이게 정말 보기는 ‘대전사랑운동 전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만 이게 전시행정이 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龍淵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내무부에서 우리 시·도를 자꾸 과거처럼 관장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민선구청장을 선출해 놓고 난 이후 구청에서 시청의 말을 듣지 않아서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사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과 구청과 시청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 구청의 과장은 시청에 들어올 때는 계장으로 보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같은 통례, 전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청공무원들이 차라리 구청으로 진출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희망을, 시청에 있으면서 직원은 말단 주사면 계장이 되길 원하고 계장에서는 과장으로 올라가길 원하고 과장에서는 국장이 되길 원하는 것이 셸러리맨의 당연한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이 바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실상이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떠한 경우라고 굳이 설명 안드려도 아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구청내에서 서기관으로 임명했을 때 시본청에 들어오면 계장이고 나보다 들어온지도 훨씬 늦고 서열도 늦은데 거기 있으면 서기관 되면 뭐하러 시청에 근무합니까, 구청에 가서 근무하지.

기 잘못된 것을 탓하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본청에서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자치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대로 내무부에 좀 전에 통제위주 일변에 통제위주의 행정방식에서 거기에 탈피해서 그야말로 범규에 나온 사항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실 간섭을 못하는 것이 하나에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에 대한 지도감독도 사실은 법을 떠난 지도감독이 좀 전에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와 같은 사례는 많이 지양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근거가 있는 것만 감독이 되고 지도문제에 대한, 지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민선 후 자치단체장선거 이후에 시보다는 구 위주의 행정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도 인사도 구가 우선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인사업무를 놓고 구청 공무원들과 시청공무원들간에 좀 전도되는 그

와 같은 경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초창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분석하고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인사문제와 관련된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인사를 통해서 꼭 이루어진 현상만은 아니겠습니까만 그야말로 시와 구간에 조정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야말로 사전조율이 돼서 합리적인 인사의 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껏, 하여튼 공무원들이 자기 연공서열이라든가 그 동안에 경력에 비해서 그야말로 기관간에 차등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행체제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와 같은 인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龍淵委員 인사권자가 기획관리실장이 아닌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그와 같이 발언한 취지의 목적은 더이상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염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장님 내지는 부시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추후로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일어나지 않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 연한이 차고 남보다 더 오래됐고 잘못된 게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승진해야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사기는 극도로 저하됩니다.

근무의욕이 떨어집니다.

그 불행은 어디로 가느냐 125만 시민의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서 가지고 윗분들과 상의를 나누서 가지고 또 민선구청장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서로 시

·군과 시청 본청과 구청간에 인사교류도 이루어지고 연공서열 같은 것도 따져 가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李殷奎委員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돈 쓰는 사업입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에 보면 대개 유리로 이렇게 삼면을 막아 가지고 해 놨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委員 그런데 그 유리부분에 말이에요. 우리 구라파 쪽으로 가면 불탄서나 이런 데 이태리 그쪽으로 가보면 유리에다가 그 지역의 지도를 잘 붙여 가지고 그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전은 유리만 해 놓고 엉뚱한 포스터만 갖다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외지에서 오신 대전 방문객이라든가 우리 대전시민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전시 지도를 잘 된 것을 하나씩 붙여줬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건의합시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공보관실소관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공보관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 저희 공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이원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공보행정의 여건과 방향을 보고 드린 후에 특히 금년도에 중점을 뒀야 할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여기는 홍보센터문제, 먼젓번에 전광판 문제, 우리 감사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뭔지

기억하세요?

광고회사에서 대행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 시정을 전달하는 그러한 광고판을 한번 설치해 보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 실장님께서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나 한번…….

○公報官 金鍾洙 이 문제가 저희들 나름대로 광고에 관해서 제가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옥상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도청에서 대전역까지를 제외하고는 5층 이상 건물에는 옥상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양하게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강기획광고와 저희가 한번 상의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해 봤더니 거기에서 원하는 내용은 지하상가 그러니까 동양백화점 쪽에 있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쪽에다가 광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높이 1m 정도 사방에 다 죽 둘러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니까 거기가 이제 무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붕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m정도의 광고판을 거기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무대가 그냥 상당히 죽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지하상가에 대한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만 영진측에 협조를 요청해서 어느 부서에다가 설치를 하든지간에 거기에서 시정광고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협조공문은 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되고 다음



이제 옥상광고 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다만 옥상광고를 할 경우에 건축주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시가 과연 거기에 중재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크게 그렇게 잘 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殷奎委員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좋은 안이 있다면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 간행물은 대개가 그냥 가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간행, 어떤 것이 지금 판매가 되는 겁니까? 시 간행물 중에서는.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시 간행물이 이제 저희가 대부분이 그 동안 간행물을 천부면 천부 발행해서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간에 일방적으로 배부하는 형식을 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천부를 발행해서 그냥 다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싼값이라도 팔아 가지고 일부의 경영수익도 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착안해 보자 해서 그것이 관행을 판매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지금 4개 저희가 서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것은 대전지명지하고 시정백서 그 두 종을 지금 700부를 의뢰해서 팔다 보니까 지금 50부가 팔렸어요.

1년간 팔은 실적이 50부라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우선 서점마진율을 그 동안 5%를 줬거든요 그리고

인쇄원가에다가, 인쇄원가 전체에다가 그놈을 이윤을 10% 붙여 가지고 서점 마진을 서점에다 5%, 시에서 5%를 받다보니까 책값이 무려 2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더구나 흥미도 없는 그런 책을 누가 사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개선해 가지고 서점 마진율을 20%로 올리고 또 책값도 저희가 인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팔아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야 싸야 우선 시민들이 접근도 용이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부수적으로 노리는 것은 그 유료간행물과 무료간행물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많이 나가는.

그래서 서점에다가 간행물 코너를 설치해 가지고 같이 넣어 주면 필요한 사람들이 살 사람은 사고 무료로 가져가는 간행물은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한번 금년부터 시도를 해 볼려고 그러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殷奎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 다. 국제통상협력실소관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국제통상협력실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평소 저희 시의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를 살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여건과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새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는 시켜줬습니다만은 논란 끝에 서로 개편되는 조직개편안을 보면은 국제통상협력실이 없어지고 기획관리실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도 주요업무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될텐데 기획관리실내에 들어가서도 지속적

인 추진은 계속되는 것이죠?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국제협력분야는 기획담당관실에 하나의 계로 편성이 되고 통상협력계는 지역경제국의 통상과가 새로 생겨서 그리로 인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한 사업이 다 실천이 되도록 완벽하게 인계를 하겠습니다.

○金龍淵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상협력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새로 부서가 배치되면은 그 부서로 알맞게 배치가 되는 것이고 단, 보통 통례로 보면은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동요를 해 가지고 지금 현 자리에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되고 끝날 때 마무리가 잘 안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새로 재배치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자세하에서 직원들이 혹시나 나태하거나 해이해 지지 않도록 좀더 감독하시고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미주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죠?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작년에 10월달에 자매결연 「조인」을 하도록 쌍방에 다 협의가 되어서 일정까지 잡았었는데 국정감사 일정하고 겹쳐서 이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조인」행사가 하나 있고 지역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자매결연 「조인」과 함께 「켈거리」하고 「뱅크

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委員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지역경제국하고 말하는 것인지 국제통상협력실하고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개척단이 과거에 보면은 개척단에서 많은 인원이 나가 가지고 또 기업체에서 같이 더 붙어서 나가서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저쪽에서 수입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오는 예가 없어 가지고 돈만 쓰고 왔더라는 것이 지상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왕에 나갔으면 한 가지 물품이라도 더 많이 팔고 계약이라도 맺고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없어지고 기획관실에 한 개 계가 들어갑니까?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예.

○李殷奎委員 또 지역경제국에 한 개 계가 들어가지요?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계가 들어가서만 기능하고 합해져서 통상과가 생깁니다.

○李殷奎委員 그리고 지역경제에 통상과가 생기고?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지역경제국 안에 하나의 과, 통상과.

○李殷奎委員 또 기획관리실에는?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기획관리실에는 기획담당관실에 국제협력계만 그쪽으로 인계가 됩니다.

○李殷奎委員 두 과로, 두 계로 나누어진다는

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는 과고, 하나는 계고.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예.

○李殷奎委員 그래서 업무형편상 두 개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통상협력실이?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전국 일제히 국제협력실이 위의 방침에 의해서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1년반 내지 근 2년 동안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본 결과 저희들은 특별한 안은 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각 시·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시달이 되어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지역경제 분야에 통상분야는 오히려 좀 강화된 이런 감이 있고요. 또 국제협력분야는 거기에 좀 기능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획실로 해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하면은 지금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委員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는 그전에 기이 연구원을 뒀었나, 뭐 있었지요?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전문연구원이요.

○李殷奎委員 전문연구원.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예.

○李殷奎委員 그 분들이 지금 몇 분이었지요?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지금 세 분.

○李殷奎委員 세 분, 그러면 그 분들도 이번

에 같이 이원화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쪽

으로 물리는 건가요?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서 시정연구단으로 해서 전문연구원들이 같이 통합운영이 됩니다.

○李殷奎委員 아, 별도 통합으로.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예, 타 부서에 전문위원들과 같이 통합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통상협력실을 대전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 국제화라든가 세계화 쪽으로 많은 기대를 걸었고 나 외에 우리 전 의원들은 우리 임실장께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 동안 큰 뒤통수에 떠는 이러한 업무는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전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제통상이라는 이 ‘국제’ 자가 붙어서 이것도 공중분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실장님 심기가 매우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동안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임실장께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국제통상협력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더욱더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던 우리 주무실장께서는 더욱더 이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혹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좀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 대전시에 국제통상협력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고맙습니다.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에 대해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내무국, 문화관광국,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出席委員

李源玉	李相泰	朴正勳	李殷奎
金榮權	金龍淵	金成九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曹俊奉
------	-----

####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企劃官	鄭承南
豫算擔當官	李裁都
法務擔當官	盧載根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非常對策擔當官	權泰煥
公報官	金鍾洙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